

강릉지역 찾아 동해신항 건설 및 순긋해변 연안정비 추진상황 꼼꼼히 살펴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동해신항 건설 및 연안정비사업 현장점검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2일(화) 강원지역을 방문하여 동해신항 건설과 순긋해변 연안정비사업을 점검했다.

강 장관은 먼저 동해시 구호동 소재 동해신항 건설현장을 찾아 방파호안 등 개발현황과 건설근로자의 안전·보건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.

건설현장을 점검하면서 강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“동해신항이 대북방 교역거점이자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 “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되는 화물부두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.”라고 당부했다.

이어서, 강 장관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순긋해변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 현장*을 찾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“국민안심해안사업은 연안침식 등 재해 위험이 큰 지역을 완충공간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해 대응사업이다.”라며 중요성을 강조하며, “확보된 완충공간은 지역에 필요한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란다.”라고 당부했다.

* 순긋~사근진지구 국민안심해안사업: 재해완충구역 확보(220억원, '23~'27)

한편, 이날 저녁 강 장관은 강원도 지역 수협조합장과 전국어촌계장협의 회장 등 수산단체장과 만나 강원도 수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
담당 부서 (동해신항)	항만국 항만개발과	책임자	과 장	황상호 (044-200-5930)
		담당자	사무관	한경록 (044-200-5935)
(연안정비)	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	책임자	과 장	김원중 (044-200-5980)
		담당자	사무관	김갑용 (044-200-5985)
(간담회)	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준성 (044-200-5420)
		담당자	서기관	허남기 (044-200-5425)